

주제/구역장의 실제적 역할

강사/이정현 목사

구역장은 선한목자 예수님과 비교하여 작은 목자라 할 수 있다.

구역장은 청지기다. 청지기란 '집을 관리하는 자' 또는 '물건을 분배하여 주는 자'란 뜻을 갖고 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잘 나타난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눅12:42). 주님은 여기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종들에게 적당한 양식을 분배해 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인도자는 주인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이나 은사가 있다는 것, 그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나누어 줄 책임이 있는 자이다(돈, 지식, 건강, 재능, 복음...).

구역장은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섬기는 종이다.

1. 구역장의 실제적 역할

1)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범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투포스'와 '미메오마이'이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2:21).

바울도 모범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고전4:16).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자 된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고전11:1).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 받으라"(빌3:17).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4:9).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투포스 해야한다(예배, 모임, 전도, 기도, 봉사, 언어생활, 가족간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교우간의 관계...).

서울대의 김규현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role modeling이라'고 했고, 래리 리차드는 '모범은 추종자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2) 구역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기도란?

기도의 대상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믿는가?

기도로 구역원을 터치하라.

3) 말씀을 잘 준비하라.

구역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이므로 말씀의 전문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공과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준비, 연습해야 한다.

말씀을 자신과 구역원들의 생활에 적용시켜야 한다(본문읽기-관찰-해석-적용).

4) 연락과 심방을 잘 하라.

구역원들의 영적, 육적 상태를 부지런히 살피는 행위이다(잠27:23).

전화, 편지, 메일/ 주 1회 이상 연락/ 구역예배, 주일예배 안내, 신앙점검, 상담
지혜롭게 전화하는 방법/

금, 토요일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심방/ 고난 당하는 자, 시험에 든 자, 어려운 자, 환자/
구역원들의 부모님, 형제들도 전도를 위해 심방에 포함시켜라.

교역자와 함께 심방할 때는 교역자가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TV, 전화, 빨래, 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내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다(렘23:2).

5) 협력하여 봉사하라.

식당, 청소

이관식 목사가 “제직 세미나 교재”라는 책에서, 집사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있다. 1등급 집사는 뱀세메스로 법궤 수레를 끄는 두 암소와 같은 집사이다. 2등급 집사는 자막대기 집사이다. 3등급 집사는 비행기 집사이다. 4등급 집사는 미꾸라지 집사이다. 5등급 집사는 개구리 집사이다.

구역원들과 협력해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과 타 구역장들과 협력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 필요하다(교육기관 봉사, 연합전도 및 기도회, 특별행사).

6) 끝까지 인내하라

사명 감당은 죽을 힘을 다해, 죽을때까지 하는 것이다.

과정에 어려움, 환난, 낙담, 무능력의 현상이 나타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볼때까지, 끝까지 참는게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더디 변하고 영적성숙이 늦어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2. 구역장을 세우신 목적

교회의 일꾼이라 할 때는 교회의 직원, 준직원, 임시직원을 포함한 교사, 성가대원, 구역장 등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세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11-12을 읽어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이 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탈티조'로, '무엇을 수리하다'(마4:21) 혹은 타락한 사람에게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다'(갈6:1)는 뜻으로 쓰였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10에,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도 사용이 되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 나가야 한다. 잘못을 고쳐주고 침체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며, 믿음의 부족을 채워줌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빠가 어긋난 곳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어야 하듯,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이 직은 봉사를 위하여 주어진 직분이다. 특히 교회의 구역장은 섬김과 봉사의 직이지 권위를 자랑하거나 높아지고자 하는 직분이 아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35)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이름없이 빛도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벧전4:10)는 것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뜻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체끼리,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든든히, 건강하게 성장, 성숙시키도록 우리를 세워 주셨다. 어떤 의미로는 앞에서 진술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이요, 뜻이며 아울러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진짜 구역장은 이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바로 알고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3. 결론

우리는 뚜렷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소명이며 가치 있고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모범을 보이고, 기도해 힘쓰며,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구역원들을 부지런히 돌아보며, 협력 봉사하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이런 생활을 통하여 구역이 든든히 서 가고, 신천교회가 더욱 부흥해야 하겠다.

